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의무직불제 시행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가 도입돼 체불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규 발주되는 공공 프로젝트에는 공공기관이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발주 공공기관이 입찰공고문에 의무직불원칙을 명기한 뒤 당사자 간 협약서를 받아 진행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6개 기관, 7개 프로젝트에 이미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가 시범 적용되고 있다. 도내에는 국도 65호선 삼척~동해구간 공사에 적용 중이다. 안은복